

노학동 오디오 하우스

Nohakdong Audio House



설계자 | 임희선_KIRA | (주)도씨에 건축사 사무소
 단국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런던 메트로폴리탄 대학교에서 준석사과정(Postgraduate Diploma)을 수학하였다. 서한 건축사사무소와 (주)무영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실무를 익히고, (주)도씨에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였다. 현재 노원구 건축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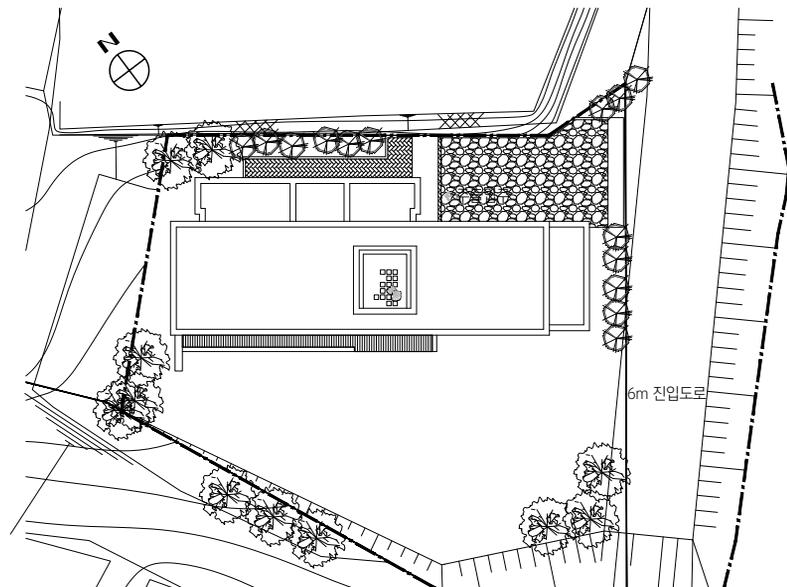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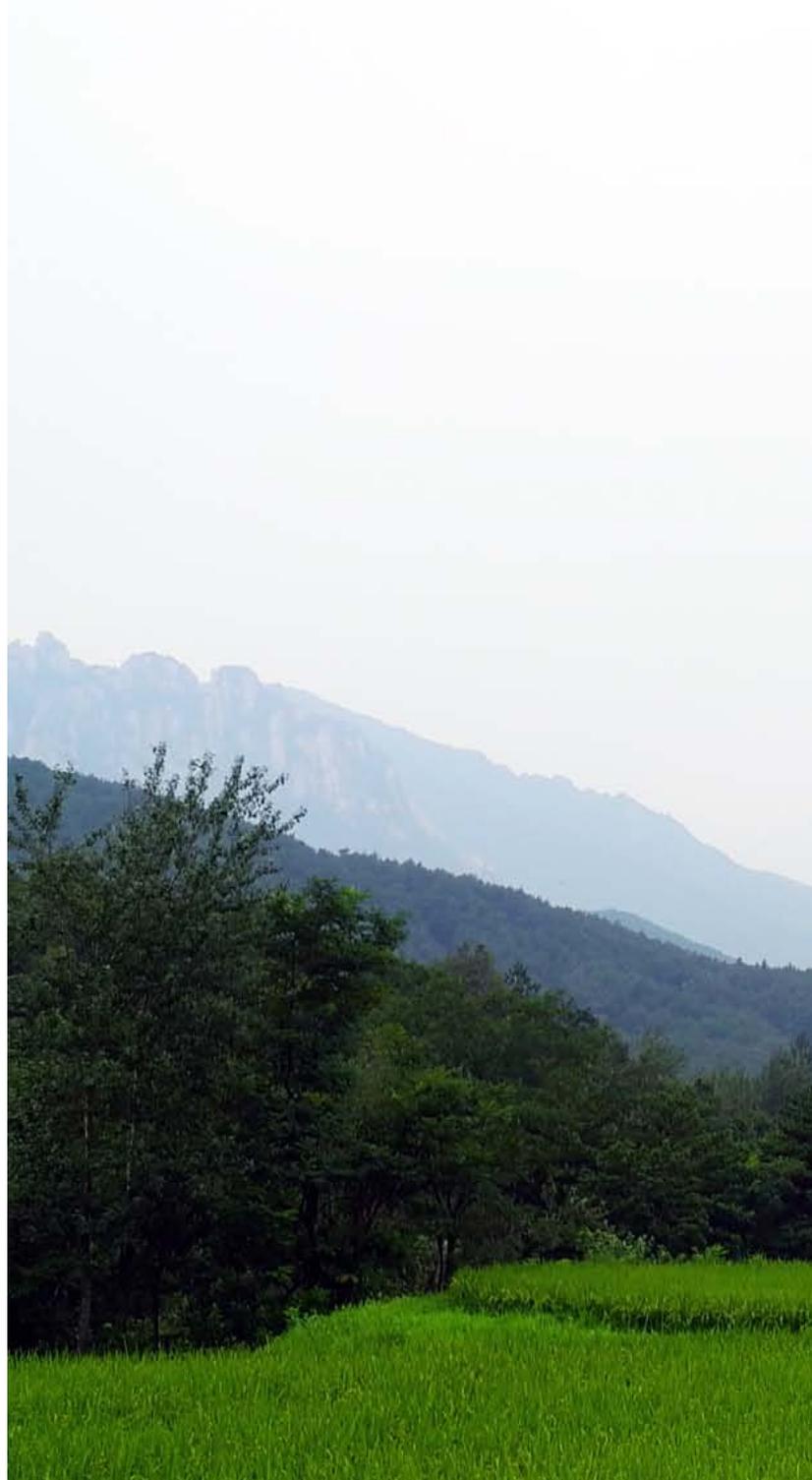
설계자 | 김은미_BNA | 대한건축사협회 전문위원
 한양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후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에서 건축학 학사,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건축학 석사를 취득하였다. 최근 제일모직 한남동 사옥 입면, 상원 F&B 사옥, 방배동 힐스 나인 등을 작업하였으며, 현재 평창 철도역사를 설계하고 있다.

- 설계팀 : 손의정, 김지현, 김승현
- 전문기술협력
 - 구조분야 : 나라구조
 - 기계설비분야 : 세진ENE
 - 전기분야 : 하이플랜

건축주 | 김복식
 감리자 | 임희선
 시공사 | 위탁시공

대지위치 | 강원도 속초시 노학동
 주요용도 | 단독주택
 대지면적(Site Area) | 1,656.00㎡
 건축면적(Building Area) | 244.89㎡
 연면적(Gross Floor Area) | 311.56㎡
 건폐율(Building to land Ratio) | 14.79% (법정: 20%)
 용적률(Floor Area Ratio) | 18.81% (법정: 100%)
 규모(Building Scope) | 지상 2층
 구조 | 철근콘크리트
 주요 마감재 | T30 현무암 판석, T30 샌드스톤, 슬레이트 파석 패널 붙임
 설계기간(Design period) | 2013. 5~. 9
 공사기간(Construction period) | 2013.10~2014. 6
 사진(Photographer) | 김은미(Kim, Eun-mee), 김승현(Kim, Seung-hyun)

Client | Kim, Bok-sik
Architect | Lim, Hee-sun Kim, Eun-mee
 Project team | Sohn, Eui-joung Kim, Ji-hyun Kim, Seoung-hyun
General Contractor | Construction on Consignment
Location | Nohak-dong, Sokcho-si, Gyeonggi-do, Korea
Structure |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Engineer | Nara Engineering
 HVAC Engineer | Sejin ENE
 Electrical Engineer | High Plan Engineering
 Finishing | T30 Sandstone, Basalt Stone





울산바위를 바라보며 앉아 있는 속초 노학동 대지에 새로이 보유했던 오디오를 위한 집을 설계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건축주가 일주일 중 절반 정도를 보내게 될 이 집은 일반 단독주택의 평상성과 듣고 즐기는 풍경의 무게 잡기로 시작되었다.

집은 작은 마을의 도로를 따라 그 길 끝에 위치한다. 울산바위의 경치가 펼쳐지는 남측이 다른 대지 없어 곧장 숲으로 이어져 개방성과 근·원경 풍경 모두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로는 최고의 조건을 갖추었다.

건물은 정문을 통과해 바로 만나는 '삼대(三代)를 위한 주차장', 1층 '오디오 거실', 그리고 2층의 '개인공간', 이렇게 세 개의 매스로 구성되었다.

바람이 너무 심해 학이 고개를 넘지 못했다는 의미의 '학사평'이라 불리는 지역이기에, 집으로 진입할 때 바람과 눈으로부터 막아주는 동시에 삼대가 모여도 거뜬할 주차장을 계획하였다. 이 매스는 철평석으로 마감하여 단단한 느낌을 주었고, 서측 끝은 인접 세대와 최소한의 경계를 형성해주며, 바람과 눈을 막아주는 날개벽은 주차장과 같은 재질로 마감하였다. 이 두 개의 하단

구조물은 2층 매스를 부유하는 듯한 느낌으로 받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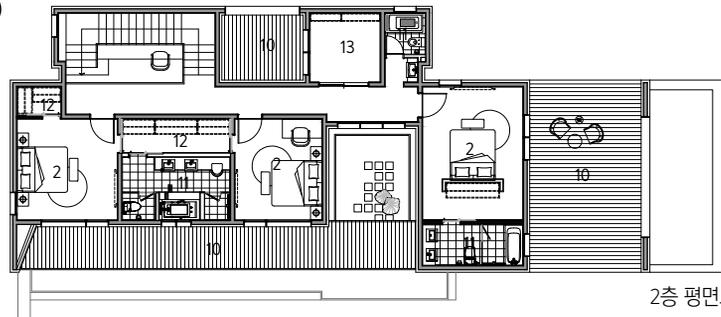
건축주가 오디오를 즐기는 방식은 일반적인 오디오 마니아와는 달리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듣기를 원했다. 신축하는 단독주택에 사운드 질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대형 밀폐형 감상실을 계획할 수도 있었지만, 갇히기 싫어질 만큼의 멋진 주변 풍광이 있을 뿐더러 때때로 이 공간에서 삼대가 모일 계획이기에 함께 감상하고 싶은 바람이 감상공간을 거실로 낙점하게 하였다.

1층에서도 마당과 함께 원경의 풍경을 즐길 수 있지만, 2층에서 만나는 울산바위의 풍경은 더욱 훌륭하기에 침실과 욕조에서 바깥 풍광을 조망할 수 있게 계획하였으며, 게스트 침실에는 면적과 비슷한 크기의 데스크를 만들어 개별성과 쾌적성을 부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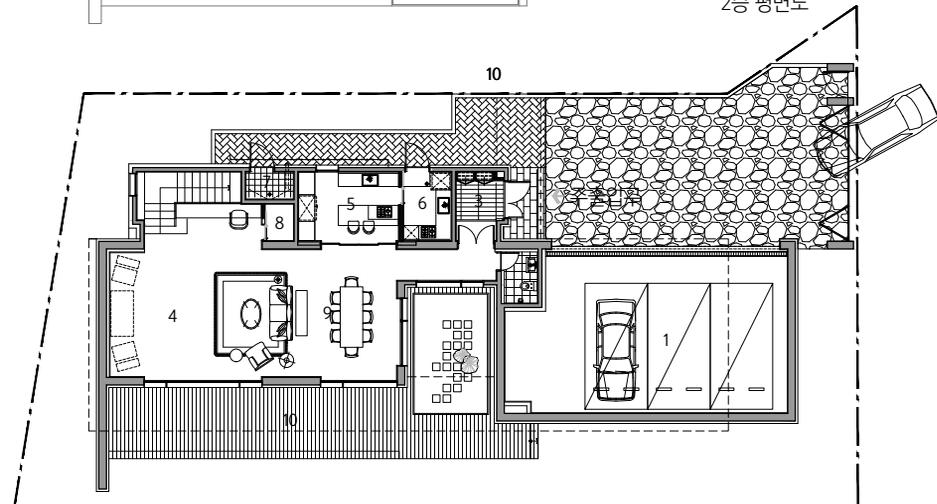
인접 세대들은 주변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또 하나의 바위가 앉아있는 모습으로, 울산바위가 병풍처럼 둘러싼 대지 풍경과 하나의 그림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설계하였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으로 주요 내부공간 사진을 공개하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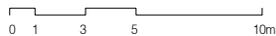
- 1. 주차장
- 2. 침실
- 3. 현관
- 4. 거실
- 5. 주방
- 6. 다용도실
- 7. 보일러실
- 8. 창고
- 9. 다이닝룸
- 10. 데크
- 11. 화장실
- 12. 드레스룸
- 13. 멀티룸



2층 평면도



1층 평면도





1. 주차장 2. 침실 3. 드레스룸 4. 거실 5. 화장실 6. 다이닝룸 7. 수공간 8. 피트 9. 데크 10. 계단실

